

## 2025 년 6 월 오이코스 나눔지 Oikos Sharing for June 2025

오이코스에서 찬송가 한 곡을 정하여 부른 후, 대표로 한 사람이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At Oikos, after selecting and singing a hymn, one person prays for the meeting.

말씀 읽기: 잠언 1:1-7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Scripture Reading: Proverbs 1:1-7

The beginning of wisdom is to fear the Lord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잠언

Reading the Book of Proverbs through a Christ-centered lens: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며, 특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경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구약성경의 율법을 규정하시며 지혜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지혜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흠 없이 경외한 그리스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경이로움에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God reveals His wisdom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God's wisdom is victory through weakness and suffering, especially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cross. To those who believe they can save themselves and consider themselves wise, the cross appears foolish. This is because the cross forces them to confess their total helplessness and calls them to worship the One who was crucified. The cross is the wisdom of God. It is through the cross that God saves the foolish and transforms them into wise people.

Jesus becomes the wisdom of God to us through the gospel. He defines the law of the Old Testament and is the culmination of wisdom. Jesus did not come merely to demonstrate what wisdom is or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 He came to be that very wisdom in this world. Through Christ, who feared God perfectly, those who continually repeated foolishness come to recognize their ignorance and, overwhelmed by the wonder of His love, are led to praise God.

## 잠언 한눈에 보기 **An Overview of Proverbs**

어떻게 해야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26 장 4 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며, 5 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잠언이 맞는 말씀일까요? 어리석은 자들과의 논의는 무익하다고 말하는 4 절과 미련한 자가 스스로 옳다 여길 수 있으니 답을 주라는 5 절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How can we properly understand and apply the book of Proverb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terpreting Proverbs is discerning the context in which each proverb applies. For example, Proverbs 26:4 says, "Do not answer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or you

yourself will be just like him,” while verse 5 immediately follows with, “Answer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or he will be wise in his own eyes.” So which one is right? Both are. Verse 4 warns that engaging in a fool’s logic is pointless, while verse 5 teaches that there are times when a response is needed to prevent the fool from thinking he is right. Wisdom is knowing which proverb fits which situation.

잠언의 서론이자 핵심은 1 장 1-7 절입니다. 1 절은 잠언의 화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 소개하며 잠언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간으로 함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7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은 잠언의 모든 구절을 들여다보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듯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도 잠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경외라는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The introduction and core of Proverbs is found in 1:1–7. Verse 1 identifies the speaker as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grounding the book in Israel’s history and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Verse 7—“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serves as a lens through which all of Proverbs must be read. Even verses that seem to omit direct references to God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framework of reverence for the Lord, who has established a covenant with His people. True wisdom is deciding to live a life rooted in this covenant, guided by love for God and His word.

잠언은 절대적 약속이나 사실을 진술한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잠언 15:6)라는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부른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잠언 말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 경험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는 참됩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 경험들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을 요청하는 부르심입니다.

Proverbs is not a book of absolute promises or guaranteed outcomes. For example, "The house of the righteous contains great treasure, but the income of the wicked brings ruin" (Proverbs 15:6) is not a guarantee that godliness will always lead to prosperity. In a fallen world, even wise choices do not ensure success. Why then do we have such proverbs? Because they are true from the perspective of eternity. Though they may not align with our present experience, they reflect the ultimate justice of God. Proverbs calls us to live with an eternal perspective, trusting in God's righteousness to be fully realized in His timing.

잠언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도덕주의 접근과 그리스도 중심 접근이 있습니다. 잠언을 도덕주의 접근으로 적용하면, 복음을 무시한 채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삼기 쉽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만 느끼게 하든지,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들게 합니다. 올바른 접근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을 읽으며 그 말씀을 죄책과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오히려 그 죄책감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끄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main approaches to applying Proverbs: a moralistic approach and a Christ-centered approach. A moralistic reading risks treating Proverbs like a list of rules to follow apart from the gospel, which can either lead to pride from perceived success or guilt from failure. The proper approach is to read Proverbs through the lens of Christ, understanding its teachings within the framework of guilt, grace, and gratitude. Even when we fail to live up to Proverbs' wisdom, that failure drives us to

Christ, who meets us with grace. The ultimate goal of Proverbs is not merely to teach us wise living, but to lead us to Jesus Christ—the wisdom of God—who lived wisely and perfectly in our place.

## 나눔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평소에 잠언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이해해 왔나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잠언이 읽히는지 나누어 봅시다.

How have you typically read and understood the book of Proverbs? Let's reflect on the way we've read Proverbs in the past. How has your perspective changed as you begin to meditate on Proverbs through a Christ-centered lens? Share any differences in how the book speaks to you now compared to before.

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 1:7)이라는 말씀을 다시 읽어 봅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Let's read Proverbs 1:7 again: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What does this verse mean to you personally? How does it shape your understanding of wisdom a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3. 잠언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혜도 주지만, 더 근본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진리와 지혜가 되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Proverbs gives us general wisdom for life, but more importantly, it leads us to Jesus Christ, who is the ultimate wisdom of God.

Jesus is far greater than any human knowledge or insight. In light of this truth, what are some practical ways you can live this week, confessing that Christ is your only source of truth and wisdom?

###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Praying Together in Hope**

1. 성경 말씀에 기초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1. Based on the Scripture, offer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Proverbs 3:5-6)

2.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2. Hoping for change in our daily lives, offer prayers of repentance and resolution.

3.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Pray for one another and for the church.

4. 주기도문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마칩니다.

4. Conclude the Oikos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